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7.3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0.3	-1.3	-8.8	-10.6	9.1	9.1	1.0	1.0	2.1	2.1	
통신업종	2.0	4.1	7.0	-4.8	7.9	7.9	0.8	0.8	3.8	3.8	
SK텔레콤	1.0	3.9	6.8	-8.9	6.4	6.7	0.9	0.8	4.2	4.3	
KT	2.4	2.7	4.1	-6.0	10.5	9.9	0.6	0.6	3.8	4.1	
LG유플러스	4.4	10.0	24.7	3.4	12.1	11.2	1.1	1.1	2.8	3.1	
AT&T	-0.1	-3.2	-5.9	-16.6	8.8	8.6	1.2	1.2	6.5	6.6	
Verizon	2.7	3.4	0.9	-3.9	11.2	11.0	3.9	3.3	4.6	4.7	
T-Mobile	0.6	-0.2	-7.6	-7.7	18.5	15.1	2.1	1.9	0.0	0.0	
Sprint	0.5	0.9	-15.5	4.2	28.3	N/A	0.9	0.8	0.0	0.0	
NTT Docomo	1.1	2.8	2.3	5.9	14.8	14.8	1.8	1.8	3.4	3.7	
KDDI	-0.8	3.2	6.5	10.9	13.3	12.2	2.0	1.9	2.9	3.2	
Softbank	-4.8	17.7	10.4	2.2	9.4	16.8	2.0	1.7	0.5	0.5	
China Mobile	2.0	0.3	-6.4	-15.3	10.8	10.5	1.2	1.1	4.5	4.6	
China Unicom	2.9	-1.7	-11.8	-17.3	29.1	18.1	0.8	0.8	1.5	2.2	
China Telecom	-1.1	-3.0	-5.1	-8.7	12.3	11.0	0.7	0.7	3.4	3.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SKT 41.7% (Flat WoW, +0.2%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6.4% (+0.3%p WoW, +0.5%p MoM)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소폭 상승

SK텔레콤, KT 외국인 지분율 큰 변화 없이 유지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향

7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7%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전주 26일 LG유플러스, 27일 SK텔레콤이 2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진행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주중 양호한 주가 흐름 지속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8월 3일 KT의 2Q18 실적 컨퍼런스를 예정
앞서 실적발표를 마무리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비 KT의 실적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
실적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이벤트인 8월 MSCI지수 정기변경으로 이동
MSCI지수 재편입 가능성에 높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 8월까지 지속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2	23	24	25	26 LG유플러스 2Q 실적 발표 (16:00)	27 SK텔레콤 2Q 실적 발표 (15:00)	28
29	30	31	1	2	3 KT 2Q 실적 발표 (16:00)	4

3

주간 뉴스

▶ 요금인가제 폐지, 하반기 국회서 자동 거른다

(Digital Times)

- 24일 변제일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2, 3위 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보편요금제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는 입장
⇒ 인가제는 공정경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담합 조장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
⇒ '15년부터 인가제 폐지는 국회의 단골 주제였으나, 시민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인가제 유지 중

▶ 이효성 "유선상품 자동해지 10월까지 방안 마련"

(전자신문)

-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유선 결합상품 자동해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힘
- 이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케이블TV와 협의하여 10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 제시
- KAIT, KTOA 등 종립기관을 선정하고 초고속인터넷, 통신사 등 단계적 적용 대상을 확정할 방침
⇒ 도입 시 해지신청 누락, 위약금 과다청구, 장비회수 지연 등으로 해지를 막는 행위가 원천 차단
⇒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케이블TV로 확대 시 통신3사의 점유율 상승 기대

▶ 가족끼리 데이터 나눔... SKT T플랜 30만 돌파

(Digital Times)

-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T플랜'이 출시 일주일만에 누적 가입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힘
- 신규가입, 기기변경이 아닌 SK텔레콤의 기존 가입자 중 요금제를 변경한 비중이 75%에 달했음
- 가입자 중 약 30%인 9만명은 가족 결합을 통해 가족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편요금제를 겨냥한 '스몰'의 경우 'T플랜'가입자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T플랜' 가입자의 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60% 증가하는 등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기여

▶ 이효성 위원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 통신망 무임승차 특단의 대책 강구"

(이데일리)

- 25일 업무보고에서 박성중, 윤상직 의원 등은 글로벌 CP들이 망사용료를 적게 내고 있다며 비판
- 이 위원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4기 위원회에서 바꾸는 걸 우선한다고 밝힘
- 또한 보편요금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해 항후 통신사들의 5G 투자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이 지적됨
⇒ 이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통해 글로벌 CP들의 망사용료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 같은 날 이 위원장은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검토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

▶ 5G 장비 국산 택한 LGU+

(Digital Times)

- LG유플러스는 다산네트워크솔루션즈와 유비쿼스의 차세대 전송장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힘
- 도입 장비는 기지국과 모바일 백홀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5G 네트워크 핵심 장비 100G 스위치
- LG유플러스는 수십억원을 양사에 지원하여 개발과 수급을 원활히하는 한편, 검증도 함께 진행
⇒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 이후 국내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동사는 5G 장비 선정기준에는 가격과 딜리버리 타임이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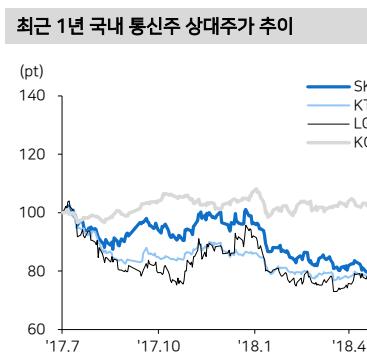
▶ 아이리버, 700억 유상증자..SKT, 음원사업 다시 속도 낸다

(Digit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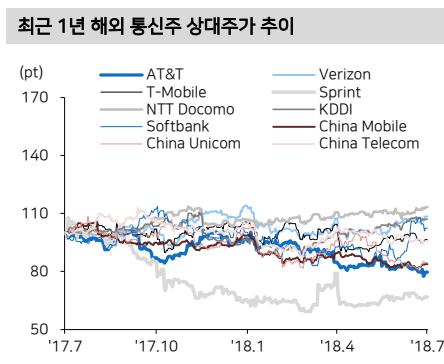
- 아이리버는 SK텔레콤과 SM엔터 대상 7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
- 3자 배정방식으로 주당 8,760원에 새로 배정(SKT텔레콤 650억원, SM엔터테인먼트 50억원)
- 관계자는 재원을 출시 예정인 음악플랫폼의 초기 마케팅 및 음원 유통 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힘
⇒ SK텔레콤은 올해 초 음악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 '그루버스', '메이크어스' 등에 투자한 바 있음
⇒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동사는 콘텐츠 투자 및 ICT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표명

(상업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42,000	17.5	15.4	15.7	1.2	1.3	2.7	2.5	4.2	4.3	5.2	5.1	15.4	13.4
	KT	28,150	6.6	20.7	21.0	1.2	1.2	0.6	0.7	4.2	4.3	2.6	2.6	5.6	5.8
	LG유플러스	15,400	6.0	10.9	11.1	0.7	0.8	0.5	0.5	2.2	2.4	3.8	3.6	9.8	9.6
미국	AT&T	31.1	225.7	173.4	186.5	31.8	34.0	23.2	25.1	55.9	59.8	7.2	6.8	14.0	13.8
	Verizon	52.0	214.9	130.3	131.7	29.4	31.0	19.1	20.1	47.4	48.6	7.0	6.8	38.4	32.9
	T-Mobile	59.6	50.5	43.1	45.4	5.4	6.1	2.7	3.3	11.9	12.8	6.8	6.3	12.1	12.1
	Sprint	5.5	22.0	32.4	32.8	2.6	2.2	5.5	-0.4	11.1	10.5	4.9	5.1	14.1	-0.4
일본	NTT Docomo	2,901	99.0	44.2	43.3	9.1	9.1	6.7	6.4	13.9	13.8	7.0	6.8	12.6	12.1
	KDDI	3,128	71.4	45.8	46.4	9.0	9.2	5.3	5.6	14.1	14.3	6.0	5.8	15.6	15.8
	Softbank	9,385	93.2	83.8	83.8	11.6	10.8	9.9	5.2	25.0	24.3	9.2	9.3	22.0	9.5
중국	China Mobile	69.9	182.4	111.8	115.7	17.8	18.1	17.0	17.3	41.0	42.4	2.8	2.7	11.6	11.3
	China Unicom	9.6	37.5	41.9	44.2	1.6	2.4	1.2	2.0	13.1	14.0	3.2	3.0	2.8	4.4
	China Telecom	3.6	36.7	56.4	58.7	4.4	4.8	3.0	3.3	15.6	16.2	3.1	3.0	6.1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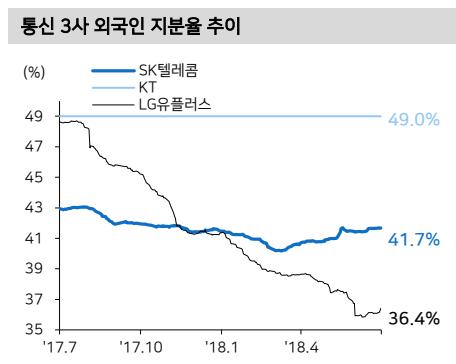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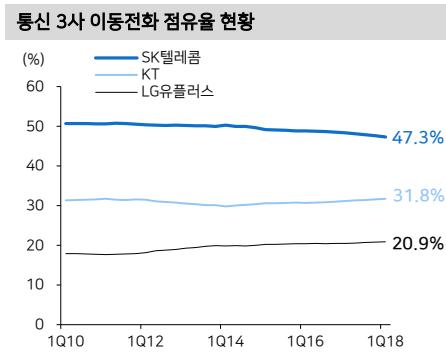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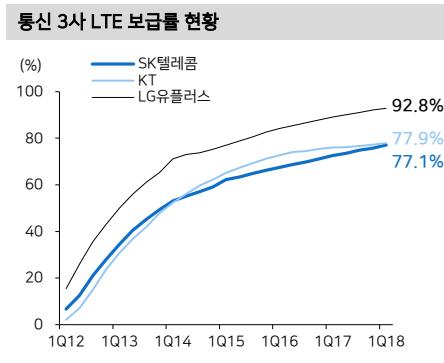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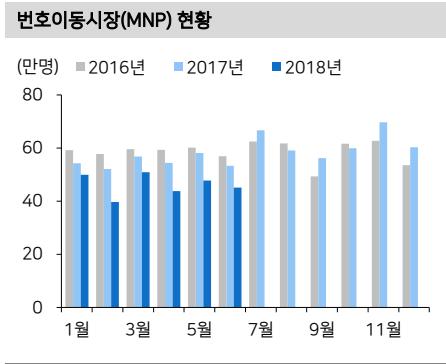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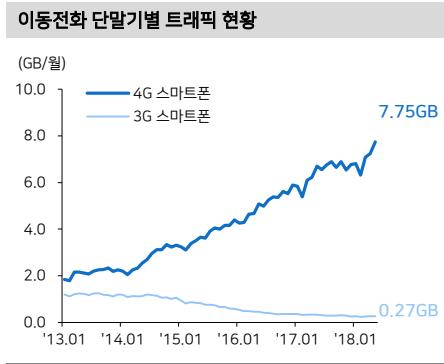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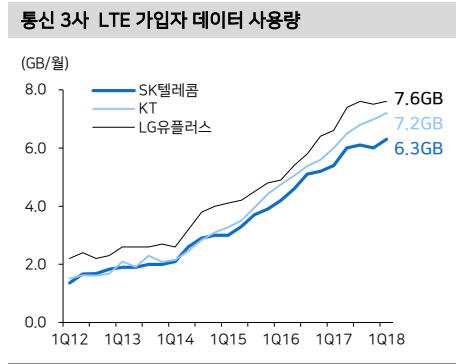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